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40 그때 그 사람(재) 50 부부극장 풍각지(재))	00 KBS 뉴스광장	00 웃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소치 2014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웃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트론 생활채조	50 지구촌 뉴스		3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한국인의 반성(재)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무지개>(재)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스타 패밀리송(재)	00 KBS 뉴스 12	55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00 소치 2014 특집 SBS 12뉴스 30 건강올리너
1 40 뉴스 특보	00 거울방학특집 꿈을 말하다	35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30 피우자 민들레(재)
2 50 직언직실	00 강연 100℃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5 컬투의 베란다쇼 스페셜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라이스맨 40 헬로 키즈 숲속마을 뽕뽕뽕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캐드난야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비밀방> 55 트론 생활채조(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린(재)	30 꼭? 꼭! 키즈 스킵	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45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15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퍼레이드 25 KBC 저녁뉴스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불만제로 UP	05 전권 TOP10 가요쇼(재)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잘키운 딸 하나>
8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린	55 MBC 특별기획 <재정의 날 수백향>	00 소치 2014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채널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1 00 이영돈·신동엽 토크쇼	30 KBS 뉴스타인	10 맘마미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짝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10 K소리 익동	35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최종회) 50 세상의 모든 디큐	35 MBC 뉴스24 ①:05 MBC 가요베스트 스페셜	35 소치 2014 특집 별을 쏘다 ①:05 나이트라인

# “단 하나의 욕망은 좋은 작품 계속하는 것”



## 영화 ‘관능의 법칙’ 주연 배우 문소리

여배우들의 활약이 뜸한 충무로에서 문소리가 보여준 지난 1~2년간의 행보는 눈길을 끌 만하다. 오랜 동반자 설경구와 함께한 상업영화 ‘스파이’(2013)에선 능수능란한 코미디를 보여줬고, 낯선 스타일 ‘본노의 윤리학’(2013)에선 교수부인 선회 역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찬경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독립영화 ‘만신’(2014)에서는 중년 무당으로 극관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동·홍상수·윤제균과 함께 한 스펙트럼 넓은 배우”라는 동료 배우 설경구의 평가처럼, 그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가리지 않으며 필모그래피에 다양한 발자국을 새기고 있다.

## “사람들 너무 노출만 이야기해 부담”

## “영화에 대한 자극 필요해 대학원 진학”

오는 13일 개봉하는 권철민 감독의 ‘관능의 법칙’도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 집착하는 40대 주부 미연 역이다. 자식을 해외로 유학 보낸 미연은 남편과의 잠자리에 집착하고, 이를 ‘견디고자’ 남편 재호(이성민)는 비아그라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는 미연은 확실히 그가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다. 문소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미연이라는 인물이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문소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미연의 일주일치 생활계획표를 상상으로 짜보기도 하고, 침대에서 미스트를 뿌리는 등 깨알 같은 아이디어를 감독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연이란 인물은 나랑 많이 다르지만, 그녀가 보통 주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정사 장면이 있다. 사실 ‘바람난 가족’(2003) 등에서 보여준 노출 탓에 마음고생을 했던 점에 비해 문소리가 잠자리에 탐닉하는 주부 역을 맡은 건 다소 의외다. “제가 노출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쭉 지켜본 남편(장준환 감독)이 영화를 선택하기 전 ‘괜찮겠냐며 걱정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관능의 법칙’은 노출이 그렇게 강조된 영화는 아니에요. 너무 노출 이야기만 나와서 부담스럽긴 해요.” 작년 가을, 영화 ‘스파이’ 홍보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문소리는 중앙대 첨단대학원에 진학했다. 전공은 연출제작. 첫 과제로 여배우를 소재로 한 17분 분량의 단편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만학의 이유를 물으니 “자극이 필요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영화 보는 게 점점 싫어졌어요. 아이가 있으니 극장에 가기도, TV를 보기도 어렵더군요. 예전에는 보고 싶은 영화는 꼭 봐

야만 직성이 풀렸는데 점점 그런 애착도 사라지고요. 전문가가 돼도 모자란 판에 영화를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영화를 좋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실제로 학교에 가니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수업시간에 거론되는 영화들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요.”(웃음)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1999)으로 데뷔한 문소리는 주·조연을 포함해 모두 20편 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벌써 15년차 배우, 은막에 등장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질문에 “그런 질문은 받아마자 맞는다”며 웃었다. “이창동 감독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욕망에 휘둘리지 마라, 그것에 지면 안 된다’. 욕망을 버리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다만, 단 하나 버리지 못하는 욕망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 년에 한 작품이라도.” /연합뉴스

EBS		
06:10 세계의 눈 <특선> 07:00 곤 07:15 마이애의 모험 07:30 꼬마버스 타오 07:45 로보카 폴리 08:00 똥똥똥 유치원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08:35 방구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몽2 09:20 부모 10:00 한국여행 <통영> 10:20 영의의 건강비결	<아토피피부염을 정복하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카지호스탄>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5 지식채널e 13:10 거울방학생활 2학년 13:30 거울방학생활 4학년 13:50 거울방학생활 6학년 14:10 천하무적 한자 900(1)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4:30 최칙폭폭 처갓집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 기사 마이크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푸비푸비 눈보리 16:00 똥똥똥 유치원(재) 16:20 이기 고릴라 동동 16:30 코코몽2 16:45 모야모야(재)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버스 타오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7:45 로보카 폴리 18:00 두디다쿵 18:15 곤 18:30 생방송 특!특! 보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포스입속 <독서와 문법> 00:50 <회법과 작문> 01:40 <문학 I> 02:30 <문학 II> 03:20 <수학 I A형> 04:10 <수학 I B형> 05:00 <미적분과 통계 기본> 05:50 <영어 구문투어> 06:40 <영어 독해의 유형> 07:30 <고교 vocabulary> 08:20 <적분과 통계> 09:10 <기하와 벡터> 10:00 포스 입속(재) 10:50 <기하와 벡터> 11:40 박봉의 이수료 만나는 경제	12:10 수능질집이 <영어독해 구문판>(재) 13:05 <영어독해 유형판>(재) 16:00 포스 입속(재) 14:50 <수학 I A형> 15:40 <수학 I B형> 16:30 <수학 I B형> 17:20 <미적분과 통계 기본> 18:10 <영어 구문투어> 19:00 <영어 독해 유형> 20:00 <고교 vocabulary> 20:50 지식채널 e 21:00 포스 입속(재) 22:00 포스 입속(재) 22:00 <기하와 벡터> 23:00 수능질집이 <영어독해 유형판>(재)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친절한 수학 익힘풀이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검정고시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수학①(하)> 10:30 <도덕①> 11:10 <국어②(하)> 11:50 <수학②(하)>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법 특강 <수학>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법 특강 <수학> 13:50 TV 중학(재) <수학①(하)> 14:30 <국어②(하)> 15:10 스물렌드	15:20 초등 2년 EBS 거울방학생활 15:40 초등 4년 EBS 거울방학생활 16:00 초등 6년 EBS 거울방학생활 16:20 초등 개념잡기 <사회> 16:50 특!특! 직업이 보인다(재) 17:20 초등 개념잡기 <사회>(재) 18:00 TV 중학 <영어③-1> 18:40 <수학③-1> 19:20 TV 중학(재) <국어①②> 20:00 <수학①(하)> 20:40 <도덕①> 21:20 TV 중학(재) <국어③(하)> 22:00 TV 중학(재) <영어③-1> 22:40 <수학③-1> 23:20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 하정우 감독·주연 ‘허삼관매혈기’ 여주인공 하지원 확정

## 부부로 호흡...성동일·김성균 등도 캐스팅

배우 하정우(사진 왼쪽)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영화 ‘허삼관매혈기’의 여주인공으로 하지원(오른쪽)을 확정했다고 배급사 NEW가 4일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 작가 위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의 근현대로 배경을 옮겨 허삼관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지원은 마을 최고의 미인으로 허삼관(하정우 분)의 구애에 넘어가 결혼하는 아내 허유란 역을 맡았다. 허삼관의 매혈 동지 방재 역은 성동일이, 방씨의 단짝인 근몽 역은 김성균이 맡았고, 허삼관의 친구이자 시련을 주는 삼씨 역의 정만식과 계화 엄마 역의 김영애를 비롯해 김기천, 김병욱 등이 합류했다. 영화는 시나리오 작업과 나머지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촬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 TV 하이라이트

### 바느질로 삶 일구는 양복 장인들



대한직업(EBS·밤 10시45분)=수천, 수만 번의 바느질로 삶을 일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연간 7만 벌의 양복을 생산하는 인천의 한 기성복 공장. 약 180명의 직원이 각자 3~4가지의 공정을 소화해, 300여 가지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벌의 양복이 완성된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양복공장에서는 평균 40년 경력의 장인들이 100% 수작업으로 맞춤 양복을 만든다. 상의 한 벌을 완성하기 위해 바느질만 꼬박 13시간 이상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고된 일이지만, 이 또한 10년 이상의 숙련공이 아니면 손도 닿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짧은 시절, 가늘을 이기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양복 업계에 첫발을 디뎠다는 이들, 배태랑 장인들이 열정을 작업으로 만들어가는 양복 이야기가 펼쳐진다.

###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리얼 잡기



리얼채널 세상을 품다(KBS1·밤 10시50분)=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톤레삽 호수. 이곳에서는 매년 12월에서 1월 초 리얼이라는 물고기가 잡히고, 캄보디아 전역에서는 리얼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 번 그물을 올릴 때마다 몇 t씩 잡히는 리얼을 잡고 물고기를 골라내기 위해 그물은 물론 삼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일 년에 단 열흘만 잡힌다는 리얼. 이 시기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는 리얼을 잡으러 가 수 한영이 캄보디아로 향한다. 리얼 잡이 현장에 도착한 한영.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리얼을 잡고 있다. 끊임없이 잡히는 리얼을 잡기 위해 한영도 급히 작업에 투입된다. 일이 쉬워 보이지만 많은 양의 리얼을 작업하는 건 쉽지않은 일이다.

### 국악소녀 헤민이의 국악 알리기



내 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35분)=국악소녀 김혜민(16). 혜민이의 국악사랑은 유별나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우리 전통 거락에 푹 빠져 친구들이 만화영화를 볼 때 국악방송을 봤었고,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최신가요를 부를 때 혜민이는 민요를 부른다. 혜민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대회에 나가 처음 1등 상을 받은 이후 참가하는 대회마다 상을 놓치지 않는 법이 없다. 요즘 혜민이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람들이 우리 거락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대중가요만 듣는다는 것. 그 사실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혜민이는 사람들에게 국악이 매력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늘 노력한다. 혜민이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국악을 알려주는 국악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 혼자서만 국악을 즐기거나 국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월 6일 丁未)

<p><b>子</b> 36년생 패도난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48년생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60년생 참신한 발상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72년생 대조해 보면 명명백백할 것이다. 84년생 빈틈이 없어야겠다. <b>행운의 숫자 : 82, 17</b></p> <p><b>丑</b> 37년생 발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장래에는 요긴하게 쓰일 일이 있겠다. 61년생 돋보일 것이다. 73년생 불관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85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리라. <b>행운의 숫자 : 45, 56</b></p> <p><b>寅</b> 38년생 길정이 현실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느니라. 50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보일 것이다. 62년생 편견을 가지면 실수할 수도 있다. 74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b>행운의 숫자 : 57, 66</b></p> <p><b>卯</b> 39년생 바두자니 거추장스럽고 버러자니 아까울 것이다. 51년생 기왕의 마당이라면 선수를 치는 것이 낫다. 63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여간디면 마음 편할 것이다. 75년생 확신이 서면 실행해도 좋다. <b>행운의 숫자 : 75, 03</b></p> <p><b>辰</b> 40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52년생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 64년생 수용한다면 길사로 연결되리라. 76년생 길조가 흉사로 급변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 <b>행운의 숫자 : 08, 48</b></p> <p><b>巳</b> 41년생 면밀하게 살펴야겠다. 53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65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77년생 상태를 위하는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b>행운의 숫자 : 30, 42</b></p>	<p><b>午</b> 42년생 규모를 줄이지 못 하면 타격이 오리라. 54년생 보기 좋은 때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66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면 된다. 78년생 그대로 놔두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21, 10</b></p> <p><b>未</b> 43년생 소폭적인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55년생 대단히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모습이다. 67년생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이 있느니라. 79년생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b>행운의 숫자 : 36, 68</b></p> <p><b>申</b> 44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실하고 있는 판국이다. 56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68년생 소홀한 판단 지탄받을 수도 있다. 80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드러나고 있느니라. <b>행운의 숫자 : 61, 32</b></p> <p><b>酉</b> 45년생 요건은 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57년생 이반에 제겨혀 버려야 후환이 없다. 69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81년생 긴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번거롭겠다. <b>행운의 숫자 : 86, 24</b></p> <p><b>戌</b> 46년생 놓쳐서는 아니 될 일들이 보인다. 58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쓸모가 있으리라. 70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 82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b>행운의 숫자 : 89, 95</b></p> <p><b>亥</b> 47년생 유사하게 반복되리라. 59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자. 71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83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으니 뒤돌아볼 일도라. <b>행운의 숫자 : 15, 39</b></p>
--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경” ☎010-9790-8237**